



강원도 영월에는
단종의 첫 유배지였던
청령포가 있다.
600년의 시간을
버틴 소나무가 숲을
이룬 그곳에서,
구본창 작가와
이야기를 나눴다.

영월에서 구본창과 나는 말들

구본창을 만나기 위해 영월에 갔다. 그의 작업실은 성남에 있고, 성남에서 만날 수도 있었지만 영월에 갔다. 구본창이라는 작가가 '13회 동강사진상' 수상자인 게 새삼 대수로운 일도 아니었지만, 그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축제를 준비한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곳까지 오실 수 있겠어요?"

EDITOR 김민찬 PHOTOGRAPHER 최민석



전시가 이전과 달랐습니다. 개인전을 수십 번은 한 대가들은 대충 큰 작품 몇 개 가져와서 보여주기도 하니까요. 동강까지 와서 보는 분들이 심심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는 해야 하니까요.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다 꺼내왔어요. 백자 작업 말고도 탈과 풍경까지 세 가지를 묶었는데 그래야 나도 이해가 되고, 보시는 분들도 재미있고, 사실 몇 달간 준비했어요. 스포츠 선수를 봐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름답잖아요. 그런 게 내 몸속에 아직 있어요.

옛날 신문기사까지 빼곡히 스크랩한 자료들은 놀라웠어요. 1990년대 신문기사 중 배병우 작가와 함께 한 인터뷰가 있던데, 기사에 '사진계의 쌍벽'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하하하, 쌍벽. 배 선생님은 쌍벽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있어서 지금까지 작업하는 데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됐어요. 배 선생님도 그랬을 거예요. 서울예전에 같이 출강했을 때 내 인기가 많았어요. 1980년대 중반 독일에서 막 왔으니까, 자유분방하게 웃 입고 와서 애들한테 수업시간에 담배 피워도 된다며, 독일식

으로 수업을 했으니까. 애들이 팬클럽 강북지부장을 한다고 농담할 정도로. 하하. 지금 해외에 나가는 소나무 작업 말고, 1990년대 후반 일본 큐레이터 중 한 사람이 배 선생님의 소나무 작업을 좋아해서 그때부터 일본 쪽으로 소개가 됐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자극을 많이 받았죠.

전시에서 백자 시리즈의 동영상 신작이 인상 깊었어요. 흙에서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지는 느낌을 영상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스틸 사진 찍은 걸 동영상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아시안 아트 뮤지엄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획한 공방 전시를 계기로 작업을 했죠. 백자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모양이 바뀌는데, 누구는 보고 색시하다고도 말하더군요.

신작 중에 산수화를 연상시키는 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 있었어요. 동양의 산과 서양의 산은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중국 황산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정말 무협영화에 나오는 지형같이 소나무나 골짜기가 대단해요. 운

이 없으면 못 보고 오기도 하는데 잠깐 구름이 벗어난 때가 있었어요. 얼마 전 예술의전당에서 전시한 이창수 작가가 찍은 히말라야 사진 봤어요? 해가 뜰 때와 질 때의 빛에 따라 산의 양감이 확연히 드러나는 사진이 서양의 산이라면, 반대로 동양의 산은 햇빛에 의한 원근법을 무시하고, 오히려 평면적으로 표현되죠. 산의 형상 자체도 많이 다르고요.

탈(Masks) 시리즈를 실제 전시에서 본 건 처음인데, 이 딱딱한 느낌은 뭘까요? 탈 시리즈 중에서 어떤 작품은 이우환 선생님이 좋아해주셨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죠. 일본 탈에는 있는 기(氣)가 우리나라는 다 없어졌다. 우리나라의 탈도 100년 전 탈은 엄청 무서워요. 기가 강하죠. 진짜 장인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생명력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격이 있던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대학생 동호회 정도에서나 만드니까. 옛날 탈 놀이를 보면, 극이 끝나갈 때쯤엔 죽어 실려나가는 게 많아요. 지금은 팽가리 치고 떠드는 것만 탈 놀이라는 잘못된 생각만 남았지만 예전엔 삶과 죽음을 따로 떼어놓지 않았고, 삶의 애환 같은 게 담겨 있었죠.

'격'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선생님의 사진에선 그게 백자건, 모델이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패션 사진을 찍을 때도 격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일반 사람을 찍을 때도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우아함을 포착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여지지 않을 뿐, 수줍어서 가려진 걸 찾아내려 노력하죠. 백자가 매력적인 것도 그거예요. 청자는 색에서도 형태에서도 이미 우아함이 드러나는 존재라면, 백자는 무덤덤하고 아무 멋이 없는 것 같지만 드러나지 않아서 아름다운 지점이 있죠.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우리나라 미술품에 대해 쓴 책이 나왔는데, 백자에 대해 겸손하다고 썼더라고요. 그가 쓴 '겸손'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그가 빚대기를, 작가들이 배워야 할 점을 백자가 가지고 있다고 썼어요.

백자 작업을 하면서 많은 컬렉터를 만나는데, 지금은 고인이 된 이타미 준 건축가의 컬렉션도 촬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의 따님인 유타카 소장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타미 준 선생님이 제 사진을 좋아해서 내 백자들도 찍어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1년 뒤에 돌아가셨죠. 국제갤러리에서 전시할 때 그거 보고 돌아가셨어요. 교토 옆에 있는 아라시야마에 개인 박물관을 가진 분이 있는데 그분의 요청으로 8월 23일에 촬영하러 가요. 프랑스와 영국, 미국, 일본에 흩어져 있는 조선 백자들. 내가 어느 도자기 작가보다 조선 백자를 많이 봤으니까, 백자 만드는 분들이 부러워하죠.

구본창이 아니었다면 백자 사진이 지금 세계를 돌 일이 없었을 테니, 다음 작품 소재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사방 탁자랄지, 조선시대의 목가구 아시죠? 이탈리아의 미니멀한 디자인보다 훨씬 아름다운데 보여지는 건 박물관 카탈로그 이상의 이미지가 없잖아요. 그걸 현대사진의 맥락 안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진행하는 작업 중에는 전쟁과 관련한 것도 있어요. 2010년인가, 오형근은 군인을 찍어서 발표했고 여러 작가들이랑 '전쟁'을 주제로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박물관에 있는 전쟁 유품 중에서 '어머님 전상서'라고 쓴 편지가 나왔어요. 어떤 군인이 어머니한테 보내려고 쓴 편지인데 배달이 안 된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살아계실까 찾아봤더니 101세 되신 분이 나타났어요. 총알 구멍이 난 철모와 편지,

어머니를 사진에 담았는데 그때 생각을 했죠. 전쟁은 아직도 존재하고, 그게 인간에게 남긴 것이 무언지 사진으로 담아야겠다고. 사실 2년 전 미국 서부에 가서 이라크전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 열 세분을 만나 사진을 찍었어요. 전쟁의 반대쪽 어머니들을 촬영해야 하는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아를 국제 사진 축제에서 큐레이팅을 하셨다고요. 프로방스의 작은 마을인데 그 축제 덕분에 현대사진의 성지라 불리는 곳이라고. 10명의 작가를 큐레이터 5명이 각자 추천하는데, 전 한국과 중국 작가 한 명씩 프레젠테이션했어요. 로마식 노천극장에서 밤 10시 30분에 슬라이드 쇼를 하고, 라이브로 드럼 연주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축제 분위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패션 디자이너, 크리스찬 라크로와가 아를 출신이라 옛날 성당 안에서 패션 사진전을 하고, 록시땅이라는 브랜드에선 전시를 후원하죠. 그런 곳에서 전시를 하니 얼마나 멋져요.

한국에서도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한영수라는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보통 젊은 작가들이 초대되긴 하는데 이름이 '디스커버리 어워드'예요. 이미 고인이 됐지만 외국은 물론이고, 한국 작가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1950~1960년대에 촬영한 사진들인데 전쟁 이후의 어려웠던 시절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카르티에 브레송'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충무로에서 만나 언제 커피 한잔하자, 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땐 진가를 몰랐어요. 선생님 딸이 마침 내 제자라 "아버지 사진 좀 한번 봐주세요"라고 가져왔어요. 생전에 발표되었던 사진들이 아는데 어, 너무 좋은 거야.

모마의 치프 큐레이터 켄틴 바작(Quentin Bajac) 등 5인의 노미네이터 중 'Koo Bohnchang'이라는 이름이 참 반가웠어요. 선생님이 추천하신 장계천(Kechun Zhang)이라는 중국 작가가 어워드 수상자가 되었다고요. 황허강을 참 '아싸라하게' 찍었어요. 실제 있는 상황을 꼭 연출한 듯이 찍은 게기가 막혀요. 공업시대에 와서 강아지를 안고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이라랄지, 강에서 수영 대회가 열리는 상황이라랄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이러니한 풍경을 담았어요. 어떤 생각으로 작업을 하는지 개성이 뚜렷이 보였고, 흐린 날의 미묘한 느낌을 독특한 프린트 기법으로 담아냈고, 중국 작가도 그런 큰 축제에 설 기회가 많지 않은데, 내년부터는 좋은 곳에 많이 불러달길 거예요. 그럴 때 보람 있죠.

최근에 내신 에세이 <공명의 시간을 담다>를 읽으며 '사진 기획자' 구본창이 한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놀랐습니다. 1985년에 독일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그때는 정말 사진전이라는 게 없었죠. 지금 W 있던 자리에 워커힌 미술관이라고 있었거든요. SK에서 운영했으니까, 당시엔 최고 전시를 하는 제일 좋은 미술관이었죠. 1988년에 거기에서 센세이션이라는 이름의 사진전을 우연히 맡게 됐어요. 그런 작업들이 이어지다 1998년에 일본에서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미술관과 박물관의 큐레이터들이 모이는 사진 행사에 한국 사진에 관해 특강을 하라는 제안을 받았죠. 한국 작가 10명을 소개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사진을 몰랐던 터라 감동을 했죠. 그때 휴스턴 관계자들도 있었고 해서 2000년 휴스턴 포토페스트에 가게 된 거고, 이후 덴마크와 호주로 한국 작가전이 이어졌죠.



1



2



3



4



5

1 구분장, <OSK 26-4 PL>, 2006, 2 구분장, <OSK 26-3 PL>, 2006, 오사카 시립 동양 도자 미술관, 3 탈 시리즈와 연결시킨 패션 화보(브그 코리아, 2002년 12월), 4 구분장, <White 03>, 1999, 5 구분장, <강릉관노가면극 11>, 2003, 6 지난 7월, 아틀 국제 사진 축제에서 5인의 노미네이터 중 한 명으로 나선 구분장 작가가 프리젠테이션하는 모습이다.



6

한국 현대사진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한편으론 그렇게 남 좋은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틀에 한번 다녀왔다. 그러면 이메일이 수십 통씩 오긴 해요. 아틀에서 만난 사람들이 한국에 언제 올 거다, 한국에서 뭐가 필요하다, 요청이 많죠. 만약 이갑철 사진이 필요한데 연락이 안 되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전 전화해서 왜 연락을 안 받냐, 이 사진을 보내라 말하고, 근데 사실 누군가 필요한 것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득을 위해 이 사람과 어떻게 해야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약속한 일은 정말 내 일처럼 해줬어요. 저도 사진계에서 일하며 도움을 많이 받았죠. 사진으로 극복을 해서 세상이 행복해졌지, 자살한 사람들의 심정이 너무 이해되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지금이야 사진 찍고 예술 하는 남자가 멋있지, 독일 가기 전만 해도 아주 힘든 시절을 보내셨어요. 대우실업에 다니다 정말 이 건 아니다 싶었어요. 당시만 해도 유학이란 것도 없고, 주재원이 아니면 외국에 나갈 일이 없었어요. 독일 주재원을 뽑는 가족 만드는 작은 회사에 들어가 함부르크에 가게 됐죠. 아, 난 그곳에서 처음으로 행복이란 걸 느껴봤어요. 행복하다는 것, 섬세하고, 뭔가 예쁜 것을 모으는 걸 좋아하는 게 매일 야단맞을 것이지, 한국에선 남학생으로서 할 일이 아니었으니까, 독일에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귀찮게 하지 않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축구를 좋아하든 말든 뭐라 하지 않죠. 조용하고 말이 없는 것도 동양에서 온 신비로운 존재처럼 비춰졌는지, 그들 눈엔 흠이 아니었고.

남편이 있으나 애가 있으나 인간은 외로운 존재지만, 홀로 사는 삶은 어떨지 짐작하기 어려워요. 포기한 거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혼자 살아야겠다,는 아니었고 인연이 될 뻔한 경우도 있었는데 깨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스타일이 굳어져서 누군가와 공간을 세어하는 게 어려워졌죠. 그에 따르는 외로움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극복을 해야 하는 거고, 근데 또 어떨 때는 외로움이 달콤해요. 고독이라는 게 작

가에겐 필요하지 않나. 정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나 자신과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고독이 나를 뒤흔들 때, 절박할 때 새로운 작업이나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런 거예요. 너무 지루해질 때, 살면서 가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생활이 권태롭고, 여긴 어디고,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열병처럼 알아야 뛰어넘는 순간이 와요. 어떻게 이런 게 나왔지? 하는.

에세이에서 언급한 '채널 전환'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어느 작가와 다른 삶, 개인 작업뿐 아니라 전시 기획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지금까지 병행할 수 있었던 '무기'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채널 전환이 남보다 몇 배는 빠른 거 같아요. 머릿속에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하나의 방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집중력을 발휘하려 노력을 많이 해요. 20~30년간 계속하다 보니 이제 숙달이 되어서 가령, 이를 걸러 할 일을 만나질에 끝내요. 그리고 또 다른 일, 어디 인터뷰에서 봤는데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새 소설을 쓸 때 노트북을 새로 산다고 하더군요. 이 소설은 소니에서 쓰고, 이전 도시바에서 쓰고, 아, 나랑 비슷한 면이 있구나. 가령, 오늘 저녁에 원고를 써야 한다면 미리 여기서부터 10%는 달구고 있어요. 예열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각 방의 것들을 완전히 제로로 꺼뜨리지 않는 거죠. 내 머릿속에 많은 게 끓고 있는 여러 개의 예열실이 있는 듯해요.

사람들은 '거장'이라 칭하는데, 잡지에 패션 사진도 찍으시잖아요. 지금 봐도 그 사진들이 그리 나쁘지는 않아요? 내가 나중에 너무 주책 부리는 거 같으면 후배들에게 말려달라고 해요. 기회가 돼서 보그랑 1년에 두 번 정도 패션 사진을 찍어요. 리처드 아베톤이나 헬무트 뉴튼 같은 사람은 일흔이 되어서도 보그나 이런 데서 쓰잖아요. 작가에 대한 레퓨테이션이 있고, 작가의 스타일을 받아주는데 나이 든 작가 중 우린 오래 활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 중 최금화라고 한참 활동했는데, 옛날에 패션 하던 사람들이 싹 사라졌어요. 상업 사진이라도 표현하고 싶은 느낌이 조금이라도 전달되면 좋죠. 그게 어떤 대상이건 새롭게 도전하게 하는 건 내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㉞